

유네스코 아시아 • 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 공모

‘15. 3. 19, 수정됨



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2015년 ‘유네스코 아시아 • 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’을 공모합니다. 무분별한 개발과 무관심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건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2000년 제정 이래 24개국 562건의 사업이 경합한 가운데 174건이 최우수 및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등 아태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 보존상으로 성장해왔습니다. 참고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역사유적 보호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민간 부문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한 사업 및 관민 협력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개 요 -

☐ 시상분야

- 문화유산 보존 분야(역사유적)
 - 최우수상 / 우수상 / 장려상 / 특별상
- 현대건축디자인 분야
 - 혁신 심사위원상 : 2005년 제정
 - ※ 건축디자인이 우수하고 주변의 역사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 건축물
- 시상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☐ 신청자격

-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, 보존사업 자문인, 건축사, 디자이너 등 보존사업에 참여한 모든 개인 및 단체
- 민간 혹은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, 정부가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 또는 추진 보존사업은 제외

☐ 신청대상

- 문화유산보존 분야
 - 5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최근 10년 이내 복원사업을 완료한 건축물
 - 주택, 상업, 문화, 종교, 산업, 행정 건물 및 정원, 다리 등이 포함되며, 핵심지역이 50년 이상된 역사도시, 도시구역, 전원마을
- 혁신 심사위원상 분야

- 건축디자인이 우수하고 주변의 역사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 건축물
- 부속건물, 신축건물, 광장, 다리 등 신규 건축물이 해당

☐ 주요 심사기준 (홈페이지 전체규정 참조)

○ 문화유산 보존 분야

- 보존사업을 통해 해당 장소의 정신을 전달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명확히 표현
- 건축물의 적절한 사용 및 활용
- 건축물의 중요성 해석 시 보존/복원작업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
- 자재 사용의 적합성
- 새로운 추가요소 또는 창의적 기술이 건축물의 특성과 고유한 장소성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여부
- 사업과정 및 최종산출물이 주변 환경 및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적 연속성에 기여
- 보존사업이 지방, 국가, 지역, 국제적 보존사업 및 정책에 미친 영향
- 사업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, 적절성과 향후 사용관리방안

○ 현대건축 분야

-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한 비판적 사고가 잘 드러나는 탁월한 디자인 개념
- 새 건축물이 그 장소의 역사적, 건축학적, 문화적, 사회적 중요성 등 제반 가치가 어떻게 잘 드러나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
- 새 건축물의 프로그램/기능의 일치성 및 적절성
- 새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 및 자연 조건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
- 자재와 건축기술의 선택사유 및 품질관리 적합성
- 해당사업이 지방, 국가, 지역, 국제적 건축 관행 및 디자인 정책에 미친 영향

☐ 2015년도 수상 제출기한 및 수상자 발표

- 제출 : **2015. 3. 31에서 2015. 4. 30일로 연장됨** / 발표 : 2015. 9월 초

☐ 신청서류

- 신청서(영문)
- 보존 및 복원 사업설명서(영문)
- 도면 (A4또는 A3 형식)
- 사진
- 거주자 의견서 및 소유자 동의서
- 기타 CD-ROMs, 비디오, 슬라이드 등 관련 자료
- ※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
☐ 문의 및 참조

- 문의 :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
전화 02-6958-4167/ 이메일 : culture@unesco.or.kr
※ 지원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사전 협의 요망
- 참조 :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홈페이지
(<http://www.unescobkk.org/culture/wh/asia-pacific-heritage-awards/2014ha0/>)
- 홈페이지 (양식 다운로드)
(<http://www.unescobkk.org/culture/wh/asia-pacific-heritage-awards/2014ha0/entry-forms>)
※ 신청서류 및 신청 가이드라인, 규정 전체(문화유산 보존상 및 혁신 심사위원상 각각)